

<홋카이도-서울특별시 우호교류촉진 캠페인>

홋카이도립 문화시설 이용 시 할인혜택을 받으세요~

홋카이도와 서울특별시는 2010년 10월 우호교류협정을 체결하고 다양한 교류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양 지역의 교류를 더욱 확대하고자 서울특별시민이 홋카이도립 문화 시설을 이용할 시에 우대 받을 수 있는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홋카이도에 방문하셔서 할인 혜택을 받아 보세요!

◇ 기간 : 2013년 7월 1일(월) ~ 11월 30일(일)

◇ 대상자 : 서울특별시 거주 시민

◇ 우대 시설 (12곳)

개척기념관, 개척마을, 오호츠크 유빙과학센터, 근대미술관, 미기시 코타로 미술관, 아사히카와 미술관, 하코다테 미술관, 오비히로 미술관, 북방민족 박물관, 문학관, 구시로 예술관, 매장문화재 센터

◇ 우대받는 방법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우대쿠폰을 인쇄해서 시설 창구에 제시

*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홈페이지가 아직 공사중이므로 빠른 시일 안에 공개하겠습니다.>

「姜 교류원의 홋카이도 여행기 3」

홋카이도립 문화시설 둘러보기

☆1 일째 근대미술관 ->점심(근대미술관 내 레스토랑) ->미기시 코타로 미술관 -> 홋카이도 문학관

☆2 일째 개척기념관 ->점심(개척마을 내 식당) ->개척마을

7월부터 실시 예정인 우호교류촉진 캠페인의 대상이 되는 문화 시설은 총 12 곳으로 그 중 5곳이 삿포로시에 위치해 있습니다. 삿포로에 거주하고 있으면서도 평소에는 좀처럼 발길이 닿지 않았던 미술관과 박물관을 이번 캠페인의 시찰 겸 이틀에 걸쳐 둘러봤습니다.

첫째날은 삿포로 시내 중심에 있는 시설을 둘러보기로 하고 첫 목적지인 근대미술관으로 향했습니다. 미술관은 주택가 한켠에 자리하고 있었는데 넓은 정원을 끼고 있어서인지 숲 속 안의 미술관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홋카이도립 근대미술관

전시관은 상설전시실과 특별전시실로 나누는데 캠페인 기간 동안 상설전시실은 무료로 입장할 수 있습니다.



입구



로비



상설전시실



특별전시실

상설전시실의 1층에서는 홋카이도 아사히카와 출신의 화가 난바타 타츠오키의 작품전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평일 오전이라 그런지 입장객은 별로 없었는데 미술 작품에 대해 설명하고 그걸 열심히 받아적는 한 무리가 눈에 띄었습니다. 관계자에게 물어보니 근대미술관에서는 '갤러리 투어'라고 해서 자원봉사자들에 의한 가이드투어를 실시하고 있는데 자원봉사자들에게 교육을 하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갤러리투어는 평일에는 일 3회, 주말에는 1회 실시된다고 하니 다음에 다시 방문할 때는 갤러리투어에 참가해 봐야겠습니다.

상설전시실의 2층에서는 '유리 안의 자연'이라는 테마로 프랑스 작가

갈레와 아르누보의 유리공예 작품전이, 그리고 우키요에(일본 에도시대 풍속화)에 표현된 기모노(일본 전통의상)의 문양을 주제로 한 작품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근대미술관은 홋카이도의 미술·일본 근현대의 미술·해외의 미술이라는 3가지 특성을 조화시킨 전시회를 지향한다고 하는데 난바타의 작품, 프랑스 작가의 유리공예, 우키요에의 전시를 보더라도 아역시나 하는 생각에 고개가 절로 끄덕여졌습니다.

특별전시실에서는 홋카이도 원주민인 아이누의 전통 작품과 아이누의 미의 세계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표현한 작품이 전시되고 있었습니다. 작품 중에는 아이누 민족에게 신성한 존재로 여겨졌던 곰이나 부엉이를 접목시킨 나무조각 작품이 많았는데 사람의 손으로 만들었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섬세하게 표현된 작품들이 많았습니다.

다음으로 들른 곳은 근대미술관 바로 옆에 위치한 미기시 코타로 미술관. 미기시 코타로(1903-1932)는 삿포로 출신의 화가로 일본 나고야를 여행하던 중에 쓰러져 세상을 뜨게 되는데 그때 그의 나이 31살이

었습니다. 이후 유족으로부터 그의 작품 220 점을 기증받은 것을 계기로 1967년 미술관을 개관하게 됩니다.

미기시 코타로 미술관



미기시 코타로



전시실



작품



아틀리에

전시관에는 그의 작품이 시기 순으로 전시되어 있는데 10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그의 화풍이 수시로 변해가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초반에는 인물 중심의 그림을 그리다가 하면 중국을 여행한 후에는 서커스에 감명을 받아 꼭두각시나 광대를 그리고, 또 추상적인 그림을 그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서거 직전에는 나비와 조개껍질을 주제로 한 작품을 그리는 등 다양한 화풍의 작품이 있습니다.

그는 건축에도 관심이 있어 도쿄에 아틀리에를 구상하지만 안타깝게도 완성되기 전에 세상을 뜨고 맙니다. 이곳 미술관은 2층에서 1층에 전시된 작품이 보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는 도쿄의 아틀리에를 모방해 설계한 것이라고 합니다.

최근 개봉한 일본 영화 '탐정은 바에 있다 2'에 그의 작품이 배경으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첫째날의 마지막 목적지는 홋카이도 문학관. 삿포로 도심의 휴식처라고도 불리는 나카지마공원의 한켠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하철역에서는 걸어서 10분 정도 소요됩니다.

홋카이도 문학관은 1995년 개관한 이래 아이누 민족의 문학이나 소설, 평론, 아동문학 등 당관이 소장하고 있는 25만 점의 자료를 전시하고 있습니다. 열람실에는 소설 '빙점'으로 유명한 미우라 아야코, '어떤 여자'의 작가 아리시마 타케오 등 홋카이도와 연고가

홋카이도 문학관



전시실



열람실

있는 유명작가들의 작품들과 자료들이 구비되어 있고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도 따로 마련돼 있습니다.

둘째날은 삿포로 외곽에 위치한 홋카이도 개척기념관과 개척마을을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개척기념관까지는 신삿포로역에서 버스를 타면 입구까지 갈 수 있습니다.

개척기념관은 홋카이도 개척 100년을 기념해 개관한 이래 8개의 테마로 나누어 전시하고 있습니다. 홋카이도라는 대지가 생성된 때부터 아이누문화의 성립, 개척 시대, 새로운 홋카이도 등의 순으로 홋카이도의 역사를 아우르는 자료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메인 전시관 이외에도 지하 1층에는 홋카이도의 동물 박제와 곤충 등

을 전시하는 곳도 있으며, 체험학습실에서는 다양한 놀이를 즐길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개척기념관에서는 전시관을 둘러보며 한국어 해설을 들을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입장권 구매시에 휴대기기를 대여할 수 있습니다.



개척마을까지는 개척기념관에서 걸어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개척마을은 1983년 개관한 야외박물관으로 약 54ha의 넓은 대지에 홋카이도 개척시대 당시의 건물 25 동을 재현해 전시하고 있습니다.

마을은 시가지와 농촌, 어촌, 산촌으로 구역이 나뉘어 있는데 마을 사이에는 철도가 놓여있어 여름에는 마차철도가 운행됩니다. 또한 눈 쌓인 겨울에는 마차철매도 운행됩니다.



그리고 각 건물에는 자원봉사자가 상주하며 해설을 해주기도 하고 옛날 경찰 복장을 하고 손님을 맞이하는 등 즐거움을 더해줍니다.



아사히카와 미술관



삼림자원이 풍부한 아사히카와에 위치하며, 개성있는 나무조형 컬렉션을 전시하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캠페인 기간중 제 1 전시실에서는

- ◆근대 일본 서양화가 기시다 류세이(1891-1929)의 자취를 유채화와 수채화를 중심으로 소개
 - ◆스페인 출신의 초현실주의 화가이자 판화가 살바도르 달리(1904-1989)의 판화작품 200 점을 전시
 - ◆홋카이도 서예단체인 쇼소사의 창립 50주년을 기념한 회원전
 - ◆홋카이도은행 창립 60주년을 기념한 회화와 조각 등 소장품 전시
- 제 2 전시실에서는
- ◆‘나무에 앉자’라는 테마로, 나무로 만든 의자와 방석을 전시
 - ◆‘사이’를 테마로 한 전시

오비히로 미술관



녹음에 둘러싸인 오비히로에 위치한 오비히로 미술관은 포스터 등의 프린트아트 컬렉션을 전시하는 게 그 특징입니다.

캠페인 기간중 주 전시실에서는

- ◆20세기 일본 국내외의 판화 작품을 소개
 - ◆일본의 애니메이션 미술감독 야마모토 니조(1953-)의 작품전
 - ◆홋카이도 동부 출신 미술가들의 세계를 소개
- 컬렉션 갤러리에서는
- ◆19세기 중엽 프랑스에서 활동한 바르비종파 화가들에 대한 전시
 - ◆다양한 동물을 모티브로 한 회화와 판화 조각품을 소개
 - ◆세계 각지의 관광지를 선전하는 포스터 소개
 - ◆홋카이도의 풍경을 그린 작품을 소개

하코다테 미술관



홋카이도 남부인 하코다테의 미술관으로 귀중한 서예 작품을 전시하는 게 특징입니다.

캠페인 기간중의 상설전은

- ◆유채화가 하시모토 사부로(1923-1989) 탄생 100년 기념전
 - ◆홋카이도 남부 출신 서예가들의 작품 전시
- 특별전은
- ◆일본사진 개척사
 - ◆프랑스의 화가 모리스 윌트릴로(1883-1955)의 작품전
 - ◆우에다 소큐 / 가네코 오레이 / 구와하라 슌이호의 현대서예전
 - ◆미기시 코타로의 탄생 110년 기념전

구시로 예술관



노을이 아름다운 도시 구시로 중에서도 노을 명소로 유명한 누사마이 다리에 위치한 예술관입니다.

캠페인 기간중의 무료 전시는

- ◆홋카이도 거주 사진작가인 다카다 케이코의 작품전
 - ◆물고기를 테마로 한 구시로 출신 화가 가토 야스미의 작품전
- 유료 전시는
- ◆스페인 출신의 초현실주의 화가이자 판화가인 살바도르 달리(1904-1989)의 판화 작품을 전시
 - ◆꽃과 풀을 테마로 한 일본회화전
 - ◆중요문화재로 지정된 ‘정행사’의 맹장지 그림전

오호츠크 유빙과학센터



오호츠크 연안에는 겨울이 되면 해수의 얼음 덩어리인 유빙이 떠내려 오는데, 유빙과학센터에서는 이 유빙에 대해 재미

있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영하 20도의 흑한 체험실에서는 비누방울과 물수건이 얼어붙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고, 대형 스크린을 통해 오호츠크의 유빙을 영상으로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북방민족 박물관



아바시리에 위치한 북방민족 박물관에서는 오호츠크해와 북극해 주변의 홋카이도와 러시아 연해주, 알래스카, 시베리아,

북유럽 등의 북방민족의 의식주와 정신세계, 이동수단, 생업 등을 테마별로 전시하고 있습니다. 추위와 어려운 자연환경을 극복하며 터전을 일구며 살아온 북방민족의 지혜와 생활상을 들여다 볼 수 있습니다.

매장문화재 센터



매장문화재를 조사 연구하고 보존하기 위해 1979년 설립됐으며 삿포로 시와 가까운 에베쓰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중요문화재로 지정된 2점의 출토품을 비롯해 홋카이도 내 유적에서 출토된 유물을 공개 전시하고 있습니다.

상설전시전 외에도 다양한 테마 전시전이 나 유적조사성곽전 등을 개최하고 있습니다.